

지방선거 D-100 ▶ 관련기사 3·4면

호남 민심은 '관망 중'

오는 6월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24일을 기점으로 정확히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2년 만의 전국선거인데다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까지 띠고 있어 여야가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

더욱이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새정치연합의 출범으로 이번 선거 결과는 정국을 혼드는 것은 물론 야권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런 가운데 호남 민심은 '관망중'이라는 분석이다. 후보군이 구체화되기도 않았고 기초단체장 공천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호남 민심은 제대로 된 지방 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흐름과 함께 새정치에 대한 열망, 박근혜 정부에 대한 견제 심리, 호남 정치력 복원, 차기 집권 비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지적이다.

일단 야권의 심장부인 호남 민심은 이번 선거가 지방의 일꾼을 뽑는다는 점에서 어느 당에서 어떤 '인물'을 내놓는가를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정치연합의 등장으로 인한 민주당의 호남 독식 구조가 붕괴되면서 자치단체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공천물 아직도 안갯속 민주·새정치연합 '양강' 인물·비전이 변수될 듯

능력과 집행부를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는 인물의 '콘텐츠'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호남지역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양강 구도'가 형성되면서 '인물'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라며 "새정치에 대한 지역민들의 열망도 인물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미풍'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호남 민심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등 야권이 지방선거를 통해 어떠한 집권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도 주목할 전망이다.

영남과 보수 진영에 기반을 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이어지면서 호남 민심의 정치적 상실감이 팽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영남 등에서 선전할 수 있는 후보군과 함께 새로운 이슈

와 어젠다를 통해 구체적인 집권 플랜을 제시하는 정당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호남에 대한 진성성도 관건이다. 민주당은 '선거 때만 호남을 찾는다'는 비판 극복과 함께 과감한 혁신 공천을 통해 현역 단체장과 지방 의원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정치연합도 '만만한 지역이 호남'이라는 쓴 소리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호남 발전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경선 방법과 과정도 민심의 향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략 공천 등 그들만의 경선이 아닌 지역민의 참여가 보장돼야 호남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커진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의 출범으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선거 지형이 형성될 것"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호남 민심은 지방 발전을 이끌 인물을 주시하는 한편 차기 집권 비전이 보이는 정당에 지지를 보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피겨여왕' 김연아가 석연참은 판정으로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23일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고별 무대인 올림픽 피겨 갈라쇼에서 이매진(Imagine) 선율에 맞춰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듯한 동작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평창에서 만나요" ... 소치동계올림픽 폐막

한국 금3·은3·동2 종합 13위 ... 러시아 1위

"평창에서 다시 만나요!" 지구촌 최대 겨울스포츠 잔치인 동계올림픽이 12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24일 새벽 1시 러시아 소치의 피셔트 올림픽스타디움에서 폐막식과 함께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선수들은 소치에서 만들어낸 감동의 순간을 되돌아보고, 다음 개최지인 강원도 평창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관련기사 14면>

폐막식에선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이석래 평창군수에게 대회를 전달했다.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대회기 인수와 함께 8분짜리 문화예술공연을 통해 차기 대회 개최지가 대한민국의 평창임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렸다.

소치동계올림픽에는 역대 최다인 88개국에서 2800여 명의 선수가 출전

해 98개 세부 종목에서 메달을 놓고 겨뤘다.

한국도 아이스하키를 제외한 스키, 빙상, 바이애슬론, 봅슬레이, 컬링, 루지 등 6개 종목에서 역대 최다인 71명의 선수가 출전해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수확, 종합순위 13위를 기록했다. 당초 목표했던 금메달 4개 이상 획득과 3회 연속 종합순위 10위 진입에 실패, 역대 최악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상화(서울시청)가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대회 2연패에 성공했고, 박승희(화성시청)는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와 1000m에서 정상에 올라 한국선수 중 유일하게 2관왕이 됐다. 쇼트트랙의 차세대 여왕 심석희는 계주 금메달 외에도 1500m 은메달과 1000m 동메달을 수

확했다. 소치를 은퇴 무대로 삼고 2연패를 노렸던 '피겨 여왕' 김연아는 갈끔한 연기를 펼치고도 판정 논란 속에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개최국인 러시아는 남자 쇼트트랙 3관왕 안현수(러시아명 빅토르 안), 미국 출신으로 남자 스노보드 2관왕에 오른 빅 아일드 등 귀화 선수들의 활약을 앞세워 종합순위 1위에 올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막 올랐다

광주·전남선관위, 오늘 10대 어젠다 각 정당에 전달

6·4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발전이 이끌어 갈 공약 중심의 정책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광주시 선관위와 전남도 선관위는 6·4지방선거에서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해 광주, 전남 매니페스토정책선거 추진협의회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10대 어젠다(의제)를 설정, 주요 정당에 제시하는 '매니페스토 어젠다 선포 및 전달식'을 24일 시·도 선관위 대회 의실에서 갖는다. <관련기사 4면>

이날 정책 어젠다 전달식에는 새누

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 등 주요 정당 각 시·도당 대표자 및 예비후보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선관위와 주요 정당의 실천 협약식도 이뤄진다.

광주 선관위가 제시한 광주시 10대 정책 어젠다는 ▲재정자립도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 ▲창의적인 문화도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정체성 확립과 활용방안 ▲사회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개발

▲지역사회 건강증진 활동 강화 ▲광주 정체성을 살리는 도시개발 ▲지역간 균형을 이루는 도시재생 등이다.

전남도 선관위가 제시한 전남도민 10대 어젠다는 ▲사회적 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농어촌 실정에 맞는 복지행정 ▲복지재정의 획기적 확충 ▲여수 세계박람회장의 성공적인 사후활용 ▲인권교육 강화로 차별 없는 풍토 조성 ▲문화가 숨 쉬는 도시 재생 ▲도민 중심의 지역 농수산식품산업을 활성화 ▲안전한 여수산단 및 관광양향 활성화 ▲F1 문제 해결방안 마련 ▲주민참여 예산제 등 시민참여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개발

/최원길기자 cki@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장** 부장판사를 끝으로 정년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배움에 주신 후원에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주요약력 -

- 광주 광덕고(3회), 전남대 법학과(86학번) 졸업
-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8기 수료
- 서울지방법원 서울지법 북부지원 의정부지원 판사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
- 미국 루이스앤엘라대학 국외연수
- 광주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
- 광주고등·지방법원 공보관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장
- 정통, 장성, 무안군 선거관리위원

변호사 문 방 진 올림

■ 업무개시 : 2014. 2. 14 (금) ■ 업무장소 : 광주광역시 동구 중문로 31, 3·4층(법원후문 버스정류장 앞)
 ■ 대표전화 : 062) 229-1111, 236-4000 ■ 팩스 062) 229-1122 ■ 개업소연 2014. 3. 14 (금) 12:00부터
 ※화환 대신 기부미를 보내주시면 어려운 이웃을 돕겠습니다. 기부미 1577-0333

The New E 300 4 MATIC Avantgarde 출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New E-Clas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번지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 200 1,991cc, 1,633kg, 자동7단, 복합연비 12.0km/ℓ(도시연비 10.5km/ℓ, 고속도로연비 14.6km/ℓ), 3등급, 복합CO₂배출량 145g/km
 • E 220 CDI 2,143cc, 1,780kg, 자동7단, 복합연비 16.3km/ℓ(도시연비 14.2km/ℓ, 고속도로연비 19.8km/ℓ), 1등급, 복합CO₂배출량 120g/km
 • E 250 CDI 4MATIC 2,143cc, 1,843kg, 자동7단, 복합연비 14.2km/ℓ(도시연비 12.8km/ℓ, 고속도로연비 16.4km/ℓ), 2등급, 복합CO₂배출량 139g/km
 • E 300 3,498cc, 1,735kg, 자동7단, 복합연비 10.3km/ℓ(도시연비 8.9km/ℓ, 고속도로연비 12.7km/ℓ), 4등급, 복합CO₂배출량 172g/km
 • E 300 4MATIC 3,498cc, 1,830kg, 자동7단, 복합연비 9km/ℓ(도시연비 7.9km/ℓ, 고속도로연비 10.9km/ℓ), 5등급, 복합CO₂배출량 197g/km
 • E 350 4MATIC 3,498cc, 1,803kg, 자동7단, 복합연비 9.2km/ℓ(도시연비 8.2km/ℓ, 고속도로연비 11.1km/ℓ), 5등급, 복합CO₂배출량 192g/km
 ※본 연비는 표준조건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수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